

OC-03

경기도 외래품종 벼 재배현황 및 대체방안

김시열^{1*}, 김현기¹, 조금순¹, 최병렬¹, 장정희¹

¹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기술보급과

[외래품종 재배현황]

2018년 경기도 논 벼 재배면적은 78,012ha(통계청 기준)이며 주 재배품종 및 면적은 추청39,674ha, 고시히카리 9,560ha, 삼광 7,881ha, 대안 5,545ha, 참드림 3,882ha, 골든퀸3호 2,005ha, 맛드림 1,798ha, 진상벼 1,426ha, 히토메보레 864ha, 오대벼 683ha, 기타 4,694ha로 외래품종 재배면적은 50,098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64.2%를 차지 하였다.

[외래품종 대체 품종육성 현황]

경기도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2003년도부터 밥쌀용 벼 신품종 육성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추청벼 대체 벼 품종 ‘참드림’과 한수이북지역에 잘 적응하는 중생종 ‘맛드림’ 및 추석전 출하가 가능한 조생종 ‘햇드림’을 개발하였다.

참드림(‘16년 품종등록)은 최고품질 벼인 삼광벼와 밥맛 좋은 재래종 벼 조정도를 인공교배하여 만든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며 특히, 부드럽고 찰진 것이 특징이다.

맛드림(‘14년 품종등록)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육성한 품종이며 경기도 벼 재배면적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품종인 고시히카리와 비슷한 출수기를 갖는 중생종이며 쌀수량성은 추청벼와 비슷하다. 벼키는 추청벼보다 작으며 쓰러짐에 매우 강하여 쌀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 비료를 과다하게 주어 쌀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햇드림(‘18년 품종등록)은 밥쌀용 벼로 오대벼 정도의 숙기로 빠른 조생종이며 추석전에 출하가 가능한 벼로 칠보벼와 운광벼를 교배하여 개발한 품종이다. 벼키가 63cm로 작고 수수가 19개로 많은 수수형 초형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성과]

맛드림은 정부보급종으로 공급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에 3,00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참드림은 정부의 쌀 적정생산 정책에 의해 수량성 590kg/10a으로 정부보급종으로 생산공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자체생산 종자를 공급하여 추청,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을 ‘15년 54천ha에서 2018년 49천ha로 5천ha를 감소시켰다.

[향후계획]

추청,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이천지역에서는 알찬미와 해들, 화성시 골든퀸3호, 여주시 진상미, 파주안성연천에서는 참드림 품종을 지역 특화품종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육성 품종 벼 조기정착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경기지역본부, 경기도쌀연구회,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까지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2만ha 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주저자: Tel. 031-229-5862, E-mail. koyangli@gg.go.kr